

현장속으로

7월 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몽골 국경안으로 들어와서도 한참을 고비사막 위를 날아 수도 울란바토르 시에 도착하기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칭기스칸 공황에 내린 순간, 몽골이란 나라의 중심에서부터 사람들 모습, 거리풍경까지 한국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글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1970년대 모습과 판박이다. 한국의 중고 버스와 현대자동차들이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70%정도), 날씨도 한국의 초가를 날싸와 비슷해서 외국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몽골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국제선 항공편이 개통되어 있는데, 요즘은 한국과 교류가 깊다. 한국에서는 3만6000여 명이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체류 중이고, 몽골내에서는 KBS가 방영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가 더빙이 되어 케이블TV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몽고반점’을 가진 한민족의 시원지로서 우리에게만 고항과도 같은 땅 몽골. 물이 참 귀한 열악한 초원과 사막지대에서 한반도까지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해 온 옛 조상들의 지혜와 고난의 역사가 절절하다. 역시 한국은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을 가진 축복의 땅임을 실감한다.



‘박제화’ 아픔 딛고 ‘불교중흥의 싹’ 틔움

불교의 나라 몽골의 오늘

사회주의 법난시 1만7천여 스님 살해

한반도의 7.4배에 달하는 넓은 땅에 280만 여명이 사는 몽골의 종교분포는 불교가 약 90%, 이슬람교가 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불교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과 16년전만 해도 몽골불교는 처절한 법난의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1921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몽골의 전통불교는 철저히 파괴됐다. 그 사이 7만 여 스님이 살해(1만7000여명)되거나 환속을 당했으며, 몽골 국민들은 남몰래 불교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법난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 몽골 최대의 불교대학터가 있었던 만취터 사원터다. 7월 25일, 울란바토르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만취터 사원터는 북후드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더욱 애잔한 정취를 풍기고 있었다.

1만 여명이 거주하던 방대한 사원터는 2층짜리 법당과 홍물스런 건물 잔해만을 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500명의 식사를 지을 수 있는 무게 5톤의 대형 가마솥이

사원의 옛 규모를 짐작케 한다. 1938년 스탈린 사회주의자들은 사원의 건물을 철거하고 스님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거나 결혼을 시켰다. 이 와중에 이 절에서만 무려 50여 스님이 인민재판을 통해 살해됐다. 1733년 창건된 전통사원은 이제 작은 전각과 자연사박물관을 갖춘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언젠가는 이곳도 복원될 날이 있으리란 희망을 가져본다.

760여 사원 파괴...남은 곳은 박물관화

한때 인구의 20%가 승려였을 만큼 번창했던 몽골불교는 공산혁명 이후 점차 ‘사회의 공적(公敎)’으로 몰렸다. 특히 스탈린의 입김이 이곳까지 뻗어 1937~1938년 사이 1만7000여 스님을 포함해 10만 가까운 지식인이 몰살당했다. 760여개 사찰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박물관, 창고, 군부대 막사 등으로 전용됐고, 경전과 목각 경판은 군인들의 땀감으로 쓰였다. 절에 있던 수많은 성보들이 트럭이나 열차에 실려 옛 소련으로 약탈됐다.

이 당시 법난의 여파로 사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박물관으로 용도가 바뀐 절이 여럿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초이징

라마 사원이다. 8대 벽트칸(승려 왕)의 동생을 위해 1908년 세워진 이 사원은 몽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꼽힌다. 여기에 보관된 손이 여럿 달린 신상과 남녀교합상(男女交合像) 등의 불상들은 티베트불교의 전통이 강하게 느껴진다. 1938년 폐쇄된 이 사원은 1942년부터 박물관으로 운영됐다. 이곳에서는 17~19세기 회화, 금속공예, 조각, 탕카, 초이징 스님과 벽트칸(불교 최고지도자)가 앉아있는 모습의 미라 등 유명한 전시물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92년 민주화 이후 사찰 300여곳 복구

시행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정지됐지만 사회주의 이전 몽골불교의 흥성을 엿볼 수 있는 이 사원처럼, 몽골불교문화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벽트 칸(活佛)의 거울궁전이다. 몽골불교 종정(宗正)이었던 제8대 벽트 칸(자브잔담바, 1870~1924)의 거처로 1893년 세워진 이 궁전은 주거용 2층 건물과 7개의 절로 이뤄져 있다. 벽트 칸은 1911년 독립국 몽골의 칸(왕)으로 추대됐고, 1921년 인민혁명 뒤 군주가 된다. 1924년 그가 숨지자 군주제는 폐지됐고 이후 이곳은 박물관이 돼 황실의 유품과 탕카, 불상, 약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높이 80cm쯤 되는 보름달처럼 동그란 얼굴에 잘록한 허리, 풍만한 젓가슴 등 여성미를 간직한 타라관음(多羅觀音)상 등 특별한 예술미

를 보여주는 성보들은 아름다워서 더욱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박물관에 갇힌 몽골불교의 빼어난 과거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까.

26m간단사 관음불상 불교중흥 상징

1992년 민주공화제가 된 몽골은 박제화된 몽골불교의 아픔을 치유하며 불교 중흥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방 16년인 요즘, 부서진 사원 가운데 전국적으로 300여 곳이 복구됐다고 한다. 무참히 짓밟혔던 불교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곳이다. 몽골불교의 흥부산인 간단사는 이러한 흐름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간단사 관음전에 세워진 높이 26m의 거대한 청동관음보살상은 몽골정부의 지원과 온 국민의 성금으로 1996년 세워진 것이다. 본래 이곳에는 동양 최대의 금동불이 있었는데 옛 소련군이 실어가버려 수십년 간 텅 빈 채로 있었다. 공산정권이 무너진 뒤 오치르바트 초대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불사에 나선지 6년만에 다시 세워졌다.

관음전 건물 내벽에 모셔진 7000여 기의 원불 주변의 유리창 틈새에는 여기저기 10투그리크나 20투그리크짜리 몽골 지폐가 끼여져 있다. 경내에서 신도들은 독경을 대신하는 등 큰 통(통니채)을 돌리거나 이마를 벽에 대 채 무릎인가를 발원한다. 아직까지 몽골 불자들은 교리를 잘 몰라 삼보를 존중

할 줄도 모르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 1990년 이후 법난을 피해 숨어있던 스님들이 다시, 또는 새로 가사를 입은 스님들 역시 신도들의 애경사 때 경전 독송이나 염불을 주로 해주고, 전생이나 점을 봐주는 방편불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싹트는 인재 불사와 포교가 새 희망

그러나 몽골불교의 중흥은 이제 시작단계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무하다시피 했던 불교서적도 많이 번역, 출판되고 있다. 재정 부족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않지만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불교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6월 27일 조계종 지원으로 간단사가 첫 FM라디오 불교방송 ‘고동의 멜로디’를 개국한 것이 대표적인 포교사업으로 손꼽힌다. 또 무조건 캄캄한 불교에 열광하던 90년대 초반이나 중반과는 달리 몽골불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들 자체가 발전과 진보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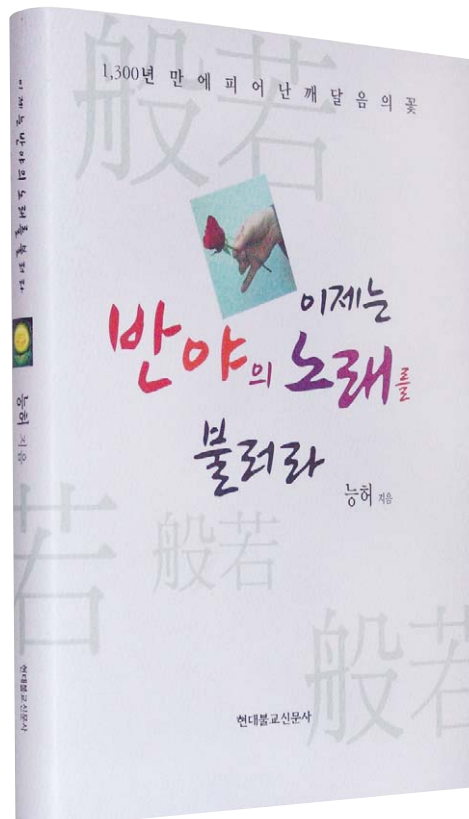
간단승가대학 김선정 교수(불교미술)는 “간단승가대학을 비롯한 몽골의 각처에서 많은 숫자의 젊고 어린 스님들이 정진하며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몽골불교의 중흥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몽골=김성우 기자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破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립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능허(能虛)가서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얕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령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닦쳐왔다. 그제서야 반씩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려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